

러시아-우크라이나에 사태에 따른
지역영향

2022. 2.

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영향

1

발생 배경

- 우크라이나의 'NATO 가입' 문제보다 거시적으로는 유럽의 안보 질서 구축을 둘러싼 강대국간 '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' 문제
 -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NATO 가입 의지 천명
 - 2021년 4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셀렌스키 대통령은 '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ATO 회원국 가입' 이라 주장
 - 러시아의 군병력 집결
 -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포함 중요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, 우크라이나 정부의 NATO 가입 추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카드로 2021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10만 명 이상의 자국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집결시켜 안보적 위기를 조성
 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주요 현안
 - 독립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-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은 정치·경제·군사 안보 등 다양한데, 이는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강대국 건설전략은 물론 유럽의 안보질서 구축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
 - * 대표적 사안으로 크림반도의 영유권 분쟁, 러시아군의 세바스토폴 기지 주둔, 오렌지 혁명과 친서방 노선의 정부 출범, 우크라이나 NATO 및 EU 가입 행보 등, 특히 사안의 성격상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천명과 돈바스 분쟁 가능성이 핵심 이슈로 부상
 - 주요국 반응
 -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국제법 및 민스크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러 제재를 경고하는 한편,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통해 평화적/외교적 해결을 촉구

□ 업종별 영향

-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해 있는 자동차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교역 차질 예상
 -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중 수출 기업수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

< 2021년 품목별 러시아 수출 기업 수 >

품목	화장품	기타플라스틱	자동차부품	합성수지	아연도강판
기업수(개)	444	239	201	137	30
수출액(백만달러)	290	175	1,509	476	211
수출액 순위	6위	8위	2위	4위	7위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 수입 부담 가중

-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
 - 러·우 갈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천연가스,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가속화
 - * 러시아가 2021년 12월 야말-유럽 가스관 공급을 중단하자 천연가스 선물가격 폭등

<'21.12월 4대 에너지 수입 동향 (단위: 백만달러)>

품목명	수입액	비중	기여율(%)
원유	7,089	11.6	19.8
천연가스	3,441	5.6	11.6
나프타	2,143	3.5	8.5
유연탄	1,833	3.0	6.7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<주요 에너지 원자재 수입단가 추이(단위:천달러)>

품목명	20.12월	21.12월	증가율(%)
원유	0.336	0.611	81.8
천연가스	0.358	0.892	149.2
나프타	0.393	0.775	97.2
유연탄	0.071	0.186	162.0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의 수급차질 발생 가능

-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(네온, 크립톤, 크세논 등)에 대해 러시아이나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*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
 - * '21년 : 네온(우크라 23.0%), 크립톤(우크라 30.7%), 크레논(러시아 31.3%, 우크라 17.8%)

□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지역물가 영향

-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,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우려
 - 2021년 수출 호조에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으로 무역수지 흑자 폭 축소, 실제 원유수입량은 감소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은 급증
- 국제유가는 '20년 12월 배럴당 51.44달러에서 '22년 2월 90.25달러로 76.5% 급등
 - 국제유가 상승은 경북지역 소비자물가 3.97%, 생산자물가 4.64%, 수출 물가 4.32%를 올리는 효과 발생

□ 원유 및 천연가스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가격의 영향

- 국제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도시가스, 석유제품, 증기 및 온수,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원유나 천연가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에너지관련 업종
- 지역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석유제품, 기초유기화학물질, 기타 비금속광물제품,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
 - 주력업종인 기계장비, 자동차관련 업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고, 최종재 생산업체보다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단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



[유가상승에 따른 경북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]

[국제유가 10% 변화시 주요 산업 생산변동]

1) 대구경북연구원 “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” 자료 인용

4

구미-러시아, 우크라이나 교역 동향

□ 구미-러시아 교역 동향

- (비중) 러시아는 구미 수출의 0.3%, 수입의 0.7% 비중을 차지하는 28위 교역상대국('21년 기준)
 - 최근 10년 동안 전체 교역 중 對러시아 교역비중 순위는 12위('10년)에서 28위('21년)로 크게 하락

< 구미-러시아 교역 현황 비교 >

(단위 : 천달러)

	2010년		2021년	
	금액	순위	금액	순위
수출	485,746	14위	62,928	28위
수입	66,485	8위	19,826	13위
수지	419,261	12위	43,102	28위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(수출 품목) 무선전화기·무선통신기기부품 및 기타전자응용기기(36.9%), 폴리에스텔섬유·나일론사 및 합성수지(23.2%) 등이 전체 러시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
- (수입 품목) 건조수산물 및 기타 수산가공품(65.6%), 골판지원지(33.7%)가 전체 러시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

< 2021년 구미 對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>

(단위 : 천달러)

품목	수출		품목	수입	
	금액	비중		금액	비중
무선전화기	10,942	17.4%	건조수산물	12,442	62.8%
폴리에스텔섬유	9,338	14.8%	골판지원지	6,682	33.7%
기타전자응용기기	9,105	14.5%	기타수산가공품	546	2.8%
축전지	8,549	13.6%	X선및방사선기기	28	0.1%
나일론사	3,222	5.1%	고무플라스틱기공기계	21	0.1%
무선통신기기부품	3,168	5.0%	기타인조섬유사	7	0.0%
X선및방사선기기	2,964	4.7%	자동화기기	3	0.0%
합성수지	2,079	3.3%	기타플라스틱제품	3	0.0%
칼라TV	1,614	2.6%	기타비금속광물	3	0.0%
운반하역기계	1,292	2.1%	접속기및차단기	2	0.0%

주: MTI 4단위 기준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구미-우크라이나 교역 동향

- (비중) 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4.7백달러 수준에 불과(구미 수출의 0.019%, 수입의 0.001% 비중을 차지하는 57위 교역상대국, '21년 기준)
 - 최근 10년 동안 구미-우크라이나 교역비중 순위는 37위('10년)에서 57위 ('21년)로 크게 하락

< 구미-우크라이나 교역 현황 비교 >

(단위 : 천달러)

	2010년		2021년	
	금액	순위	금액	순위
수출	57,020	40위	4,776	62위
수입	4	66위	34	60위
수지	57,016	37위	4,743	57위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(수출 품목) 폴리에스텔섬유·기타인조섬유사·파이셔어닐직물 및 합성수지(61.9%), 무선전화기 및 X선·방사선기기(35.6%) 등이 우크라이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
- (수입 품목) 합성수지 및 직물제의류(76.4%), 기타 화학공업제품(20.6%)이 우크라이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

< 2021년 구미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>

(단위 : 천달러)

품목	수출		품목	수입	
	금액	비중		금액	비중
폴리에스텔섬유	2,617	54.8%	합성수지	25	73.5%
무선전화기	953	20.0%	기타화학공업제품	7	20.6%
X선및방사선기기	746	15.6%	직물제의류	1	2.9%
기타인조섬유사	227	4.8%			
파이셔어닐직물	66	1.4%			
합성수지	42	0.9%			
기방	31	0.6%			
컴퓨터	28	0.6%			
칼라TV	22	0.5%			
문구	16	0.3%			

주: MTI 4단위 기준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러시아·우크라이나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황 조사

- 구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, 수출 품목이 대부분 무선전화기 및 관련 기기부품, 섬유 및 합성수지 등 지역 주력산업 관련 품목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
-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특수가스 원료(네온, 아르곤, 제논가스)의 수급문제는 구미 주력산업인 전자부품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러시아-우크라이나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직·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
 - 지역 기업의 피해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, 중앙정부 장단기 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지역 차원의 기업지원책 마련

□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충격분산 최소화

-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미세한 가격변동에도 지역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동시장과 더불어 동남아시아, 남미 등으로 수입선을 다양화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

※ [참고] 정부가 운영하는 분야별 대응창구

분야	대응창구	지원내용	비고
① 수출통제	전략물자관리원 www.kosti.or.kr · 수출통제 제도문의 02-6000-6384/6440 · 통제품목 문의 02-6000-6381~3	对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对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(美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)	기존 对러 제재 ('14, 크림병합)에 따른 통제 절차 등 안내
② 무역투자	KOTRA ·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60-7119(2→4)	"무역투자24" 온·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, 비상연락망 가동	
③ 공급망	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60-7072	소부장 수급애로·간접피해 등 기업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	
	공급망 분석센터 044-203-3861~2	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	무역협회·코트라 협업